

전남도, 식량사업 경쟁력 강화... 7550억 투입

전략작물 직불제 등 12개 사업 기후변화 따른 재해 능동 대처 농가 경영 안정 등 중점 지원

전남도가 전국 제1의 식량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전남도는 올해 전략작물 직불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비롯해 12개 핵심 사업에 7550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식량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쌀 적정 생산·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로 잦아진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이 기대된다.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향상과 쌀 적정 생산 분야에 가루쌀과 콩 등 전략작물 직불제 400억원(전국의 35%),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13곳에 27억원(전국의 44.4%),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1875ha에

37억원 등 3개 사업에 464억원을 지원한다.

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분야에 규모화 된 특·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104곳에 129억원, 공동육묘장 설치, 광역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사업에 157억원을 투입한다.

기계화가 열악한 발작물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다목적 소형 농기계 5884대 도입에 150억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4000대 21억원, 영농안전장비 2만 2000개 14

억원 등 3개 사업에 185억원을 지원한다.

농가 기본소득 보전과 경영안정망 구축 분야에는 공익직불제 22만6000ha에 4725억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13만4000호에 570억원,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14만ha에 1170억원, 농업인안전보험 12만6000명에게 150억원 등 4개 사업 6615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이 개정돼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남 농업인 5만4000명이 공익직불금 337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밀·콩 등 식량 자급률 제고와 생산비 절감, 농가 경영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해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면세유 인상액 전국 최초 지원 등과 같은 도민 행복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

전남자치경찰위,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사각지대 청년 보호 강화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자립 준비 청년 발굴·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20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전남자립기관전담기관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발대식을 했다.

참여 기관들은 지난해 12월 전남자치경찰위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 준비 청년 지원에 활용키로 뜻을 모았다.

자립 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전남에는 현재 약 650명이 있으며, 매년 약 200명이 보호 종료로 자립 준비 청년이 된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정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참여 기관들은 이번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자립 준비 청년을 비롯해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전남자치경찰위는 공공기관과 복지기관 등 다양한 참여 기관과 함께 위기 청소년 지원, 재가 장애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사업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자립 준비 청년이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33주만에 최저

해열제 등을 정리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3주만에 최저를 보인 가운데 20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들이 요양병원 등에 보낼 검사 키트와

나건호 기자

전남도 '17억원 투입' 해외 상설판매장 9곳 개설·지원

지난해 1000만달러 수출 돌파 남도음식 세계화 전진기지로

전남도가 농수산물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해외 상설판매장'이 지난해 1000만 달러 이상 수출 달성을 통해 남도음식 세계화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해외 대형마켓에 입점해 운영 중인 '전남 농수산물 상설 판매장'은 지난해 새로 개설한 5개 매장을 포함해 전세계 9개국·20곳에 달한다.

해당 판매장에서 전남산 쌀, 딸기, 배, 전복, 김 등 신선 농수산물을 비롯해 100여 개 수출기업이 500여 품목의 다양한 가공식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전남도는 6년째를 맞는 농수산물 상설판매장이 전남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남도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전남도' 브랜드 인지도 향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올해 17억원을 들여 사업 확대에 나선다.

먼저 기존 상설판매장과 상권이 중복되지 않는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9개 신규 매장 개설을 지원한다.

현지 마켓에 전남 상설판매장을 개설해 1년간 총 20만 달러 이상을 수입한 기업에 초기 개설 비용과 판촉행사 비용 등 총 5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남 상설판매장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해 모든 상설판매장에 공동 적용함으로써 상설 판매장의 품격을 높이고 '남도음식'을 글로벌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또 전남 22개 시·군과 연계한 특산물 판촉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단골고객 확보를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 남도음식만의 제철음식 기획전 등 다양한 판촉행사도 지원한다.

'전남도'와 '남도음식' 인지도 향상에 따른 부분별 명칭 사용 제한을 위해 '전남 상설판매장' 명칭 사용 승인제를 시행해 브랜드 가치 보호는 물론 판매장 운영사의 책임도 높일 방침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하반기 쌀 가격 폭락 때 쌀 긴급 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상설 판매장이 중요한 판로가 됐다"며 "상설판매장을 전남 식품의 안정적 수출 판로이자, 남도음식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

광주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진

정부일반형·대중소상생형 공장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구축비용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역기업이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광주에 위치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대상인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기업이다.

광주시는 시비 9억원 한도로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협약을 통해 구

축비용의 일부(총 사업비의 20% 이내·최대 50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왔다.

2022년까지 370여 개사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뿐만아니라 대중소상생형, K-스마트공대공장, 업종별특화, 디지털러스터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지원했다.

박상지 기자

광주시, 친환경상장 배부... 재활용 재생지로 제작

단가 20% 절감 기대

광주시가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재생종이 재질로 표지를 만든 친환경 상장을 만들어 배부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원과 시민에게 제공한 표장·상장의 표지는 두꺼운 합성소재 등으로 만들어져 분리·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광주시는 자원재활용법의 종이 재활용제품인 100% 재생지로 표지를 만들

어 희망하는 부서에 배부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과에서 1000매 정도를 대량 제작하면 단가를 20% 정도 낮출 수 있으며, 희망 부서는 필요한 만큼을 신청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업무 절차 간소화 효과도 기대된다.

순인규광주시자원순환과장은 "무심히 보관하던 상장이 언젠가는 폐기물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상장이 다른 기관에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광주 빛낸 시민 찾습니다"... 광주시민대상 후보자 공모

내달 2일부터 5개 분야

광주시가 다음달 2일부터 4월10일까지 2023년도 제37회 광주시민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제37회를 맞는 시민대상은 광주시민으로서 학문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의 명예선양과 지역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사회봉사·학술·문화예술·체육·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부문에서 각 1명씩 선정하

다.

후보자는 공고일(2월20일) 기준 3년 이상 광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자다. 각 부문별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적 공개와 자격 요건 검증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시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오는 5월 제58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공정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자 공적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 이의신청을 받고 면밀히 재검증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2일부터 4월1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인터넷은 4월3일까지 접수한다. 각 부문별 요건과 추천서 제출서식 등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최선영 시자치행정과장은 "시민대상은 시민으로서 영예로운 상"이라며 "귀감이 되는 이웃을 적극 추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민대상 수상자로 개인 157명, 단체 8곳 등 총 165명을 배출했다. 수상자들은 명예의전당 헌액, 각종 주요 행사의 초청인사 등으로 예우를 받는다.

김성수 기자